

Artist's Statement

문채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모더니즘 형태에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기계를 활용한 반복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아날로그 감성을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인 수공적이고, 공예적인 기법을 더하여 우리의 정서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물을 제작하고자 한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단순함에서 오는 매력과 아날로그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정서로 우리 생활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Stitch series

스티치 시리즈는 산업적인 기계 생산 방식과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시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소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공예가의 입장에서 반복 생산이 가능하면서도 수공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주요 기법으로 절곡과 스티치를 선택하였다. 산업 생산 방식으로 평면인 금속을 입체로 만드는 기법 중에서 절곡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만들기에 효과적이다. 절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곡이 필요한 부분에 홈을 파거나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좋다. 나는 이 구멍을 활용하여 스티치 기법을 넣음으로써 기하학적이고, 심플한 형태에 수공적인 감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Layer series

레이어 시리즈는 산업적 접합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드 조인트 방식을 사용한 작업이다. 판들이 중첩되면서 만들어지는 형태를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풀고자 하였다. 여기에 콜드 조인트 방식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것들은 공예적인 감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Modular series

오늘날 우리는 기계가 인간의 손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 속에서 손의 감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부분의 사물은 동일한 규격과 질서로 정립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획일화 안에서 사람들은 다름을 갈망하며, 따뜻하고 인간적인 정서를 그리워한다. 나는 산업화된 생산 구조 안에서 공예가 어떤 방식으로 인간적인 감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으며, 모듈러 시리즈는 그 생각의 결과물이다. 각각의 가구들은 동일한 모듈이 반복되지만, 손의 개입과 조합에 따라 매번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공예가 대량생산의 원리 속에서도 여전히 개성을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이상 모듈은 차가운 산업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는 조형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